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6호 [루게 제23288호] 주제99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훈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들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맞이한 공업도시 함흥시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새 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함흥시안의 로동계급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4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색에 맞는 특산물식료가공기지를 꾸밀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기초식품만을 생산하던 공장을 개건하여 각종 식료품들까지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로 전면시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리



시여 공장의 연혁을 들으신 다음 국수생산공정, 당과류생산공정, 빵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돌아다니며 각종 식료품들을 보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수와 과자, 장절임, 말린 수리취, 꿀취니를, 참나무버섯 등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특산식료품들의 생산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된장과 간장은 물론 자기의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자체의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하였으며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당이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지펴준 한점의 불꽃이 이제는 료원의 불길로 타올라 각 도들에 종합적인 식료공장들이 편이여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이악하게 투쟁할 때 현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감자였을 비롯한 지방특성에 맞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고 공장에서 만든 각종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영예군인들과 가족들이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선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시고 그들의 기특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사출수정쌀말신발은 모양과 색깔도 좋고 신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영예군인들의 심장속에 세차게 맥박치고있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영예군인들은 꽃방석에 앉혀 우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에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예군인들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총천병사의 자세로 선군시대를 빛내이며 량만과 희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영예군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하고 기술관리, 설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홍남제약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홍남제약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2005년 9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본보기제약공장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건설

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모형사관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추진정형과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약품들의 가지수와 약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특색있게 설계된 수천㎡에 달하는 생산건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현대적인 제약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방대한 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미는것과 동시에 의약품생산을 종전에 비해 무려 3배로 끌어올린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서 홍남제약공장이 차지하고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약품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남제약공장은 전국의 제약공장들에 원료약품을 생산보장해 주고있는 어머니공장인것만큼 개건현대화공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이 공장을 제약공장의 본보기공장, 멋쟁이공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집약화, 고속도화할수 있는 생산건물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데 맞게 현대적인 설비들을 들여놓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련판단위들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남제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선 보건의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공장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며 약품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함흥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비약의 한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인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흥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대학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학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지식과 기술로 이바지할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대학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립되고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함흥수리동력대학은 믿음직한 기술인재양성의 전당으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기지인 함흥수리동력대학은 지난 기간 세계각지의 서해감문과 대동강발전소, 대계도간석지를 비롯한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주상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육과학전시판을 돌아보시였다.

전시판에는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 기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진렬품들이 전시되어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발전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여러 강의실

들과 도서관을 돌아보시고 외국어강의도 친히 참관하시면서 교육실태를 구체적인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직원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거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범교육자들의 자료를 보시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교직원들은 일련단선 주제혁명위업을 과학과 기술로 받아들여온 미더운 지식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지식인들이 교육전선을 굳건히 지켜서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대학에서 오랜 기간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교육자들과 연구사들을 만나시어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을 과학과 기술로 받아들여온 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조국의 흥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충직한 혁명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수리동력대학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강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수리동력사업을 발전시키는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수리동력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올리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인것만큼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대학생들을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로 키워내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망성있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조국의 영원한 통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 교직원들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안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정보산업시대 요구하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교육에서 양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교육의 내용과 질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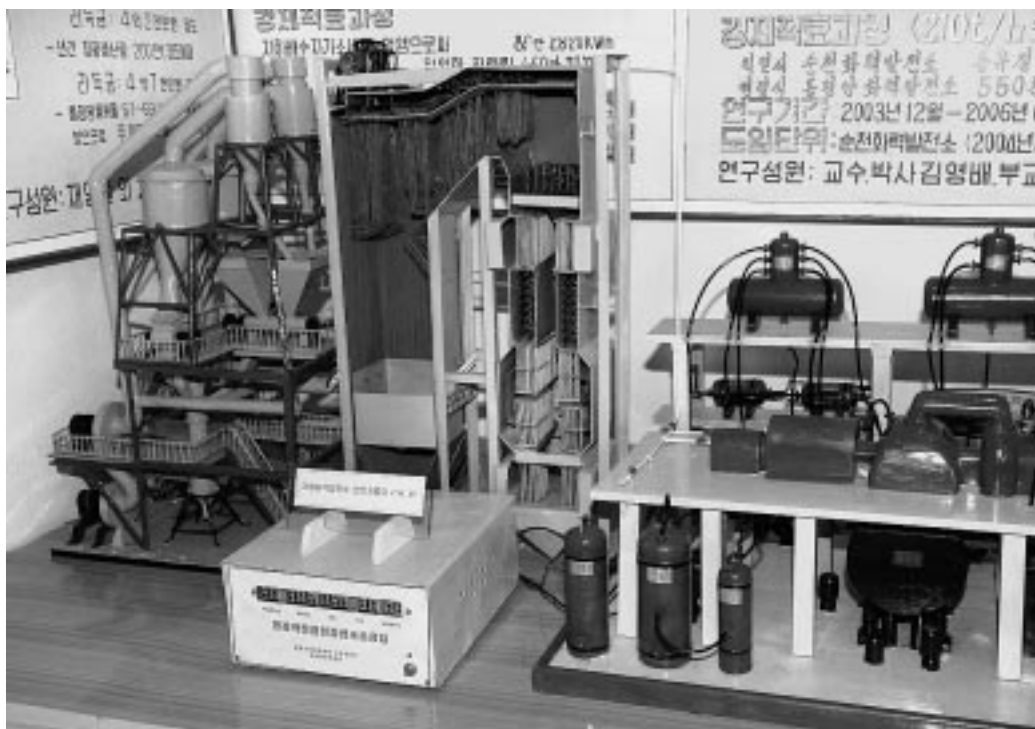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새로운 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기관들, 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혁명적대교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우리 인민의 진군운동을 과학과 기술로 안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성대국의 높은 평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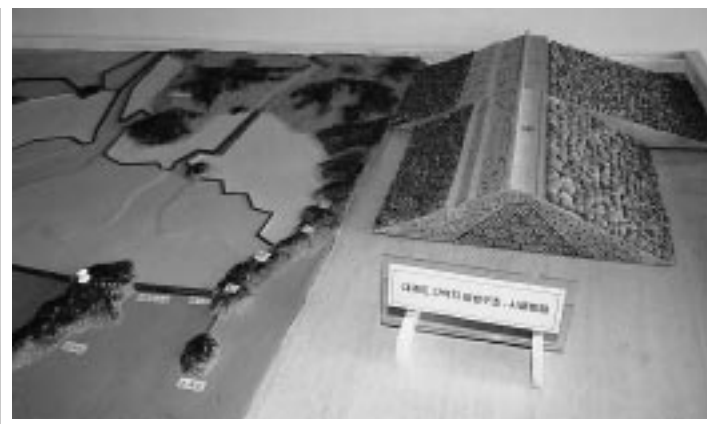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나라의 수리동력발전에서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려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에 찾아오시어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부여 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요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지보도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흥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농업종합대학에 교육과학연구설비들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산농업종합대학에 교육과학연구설비들을 보내시였다.

나라의 농업과학기술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제 98 (2009)년 2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가 앞길을 활짝 밝혀 주시였으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훌륭히 꾸릴 수 있도록 이번에도 또다시 전기영동상향형 장치, 팽동고속원심분리기, 무균조작대, 회전증발기 등 수많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에

진행되였다.

백계봉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회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교육과학연구설비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총장 리민철, 소장 최익권, 교원 리일남이 트로트하였다.

로몬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설비들에는 인민의 첫 농업대학인 원산농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최첨단과제들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에 참담게 기여할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 식의 탐구와 기발한 착상, 적극적인 탐구, 대담한 실천으로 농업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당의 교육정책과 과학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대학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선군조선의 참된 지식인, 주제형의 청년대학생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나라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던 백두산지구를 더욱 훌륭히 꾸려갈 한마음을 안고 돌격대에 탄원한 전자자동화설계원인 근로자 김은주, 선군과학연구소 로동자 리원산, 선군과학연구소 로동자 김은주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여 집단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개천시 팽복식로가배생산물동조합 관리위원장 황순희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에 참가한 심정우도 마땅한 후방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해온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강연옥은 혁명의 성지건설에 기여할 열의밑에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농업과학원 연구부조수 김혁철도 성의껏 장만한 물자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로만봉구역 인흥2동 61인민반 한총성은 여러해동안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으로써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해오는 가훈을 이어가고있다.

장림광산 소대장 리종철, 측량광 유창진은 많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돌격대에 도움이 될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청진시 포항구역 수복2동 84인민반 김경희, 회령시 은덕원 로동자

고옥순도 이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치고있다.

대성구역의 봉사사업소 로동자 오창애, 평성시시정관리소 로동자 구영애, 평안남도대의봉사관리처 산하단위 로동자인 김순영, 박승철, 황해북도대의봉사관리처 산하단위 로동자 김영순은 여러차례의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앞으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의껏 지원하며 자랑스런 로력적성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김수조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상제 판인,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피바다가극단 총장 김수조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쯘말리 싸이 나손동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장정 35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오늘 라오스정부와 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올바른 령도 밑에 조국보위와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를 보다 뜻깊게 맞이하며 나라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반제, 사회주의를 위한 한결에서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발전되리라를 확신을 표명한다.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1일 평양

아부 Dhabi 아랍주장국련방 대통령 셰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전하

나는 아랍주장국련방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1일 평양

부쿠레슈티 로므니아 대통령 드라이안 버세쓰꾸각하

나는 로므니아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1일 평양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1일 평양

양어업의 최첨단을 돌파한 자랑찬 성과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대규모의 철갑상어양어체계 확립, 철갑상어의 바다양어 완전성공

조선로동당대표회정신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 오기 위한 대전전투에 또 하나의 희한한 변이였다.

양어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손길아래 서해지구의 이름난 통정원소주변과 통연의 바다기슭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철갑상어양어기지를 일떠세우고 생태환경에 매우 예민한 철갑상어의 대양양어와 바다양어에서 완전성공하는 최첨단성과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급어종양어에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철갑상어가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큰 밑천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최첨단도 단숨에 돌파하는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를 실천으로 확증하였으며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양어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안아온 사회주의조선의 선군 12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이 갖는 통정양어장은 철갑상어양어를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에 받들려 최첨단수준의 본보기양어장으로 솟아오른 기적의 창조물이다.

수심정복의 부지에 양어목들이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통정양어장의 한복판에 빛나는 《철갑상어는 바다로

무게가 최고 135kg이나 되는 10여 종에 수만마리의 철갑상어들과 칠색송어, 산천어 등 세 품종의 맹수종, 온수성고급물고기들이 떼지어 살고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이곳 양어장에서선 콤포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생산공정과 양어장구대, 양어물수중에 대한 감시, 구역별수질상태의 실시간관측에 기초하여 산소와 먹이를 과학적으로 공급하는 등 관리운영을 첨단수준에서 종합지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세워지고 첨단설비들로 장미된 통정양어장은 오늘 인민생활을 최상의 명품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의도에 명증히 결의한 실지적인 덕을 줄수 있는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수 있는 길지의 양어기지로서의 은을 크게 나타내고있다.

대규모의 현대적인 철갑상어양어체계 확립된것과 함께 철갑상어양어에서 첨단인 바다양어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눈부신 성과가 기록되였다.

통연바다기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해본적없는 생소한 바다양어실현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바쳤다.

몸이 하느님 날아올라 풍성, 몸이 많이 뽕이로 불리우는 이 지구에 강대국인민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꽃피워주는 희한한 철갑상어양어양어장이 펼쳐진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을 따라 고난의 천리를 헤쳐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크나큰 은덕이다.

나라의 양어업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철갑상어를 비롯한 희귀한 고급어종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마음껏 먹이실 유대된 구상을 펼치시고 선군령도의 길에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활짝 밝혀주시였으며 신장과 구상, 통연 등 곳곳에 현대적인 양어기지를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최근 통연군의 양어장들을 또다시 찾으신고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양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양어장들이 일떠세워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내 조국의 기적적인 현실은 이 세상 가장 유쾌하고도 명명한 생활을 누리려 할 우리 인민의 장창한 미래를 확연히 약속하고있다.

기다 30%이상 되는 바다물에서 실현한것은 철갑상어양어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사면이다.

철갑상어가 바다물에 순응되는데 토대하여 그물우리에 의한 바다양어양어실정에 맞게 창안도입됨으로써 양어부지에 제한없이 바다인민의 인의의 지역에서 철갑상어와 칠색송어 등을 대대적으로 기르는 양어의 세 력사가 펼쳐졌다.

지금 통연바다에선 배수시설정보의 철갑상어특별보육구역에 대한 철갑상어양어에서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철갑상어의 양어못에서 해삼 등을 인공적으로 서식시키고 바다의 추악한환경에서 철갑상어와 함께 살고, 놀이, 우메, 조개 등 고급어종들을 생산하는 바다양어의 실리와 전망은 대단히 크다.

사해의 조수력을 리용하여 바다물들을 끌어들이는 자연순환원리와 우리 식의 새로운 바다양어방법이 도입됨으로써 양어장 전체 쓰지 않고 자연조수 양어를 안전하게 집약화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

조선이 결심하면 하는 최첨단물들의 시대에 우리의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이 가슴호탄한 현실은 세계에도 걸출되어나가는 선군조선의 지역경쟁의 기상과 위용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몸이 하느님 날아올라 풍성, 몸이 많이 뽕이로 불리우는 이 지구에 강대국인민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꽃피워주는 희한한 철갑상어양어양어장이 펼쳐진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을 따라 고난의 천리를 헤쳐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크나큰 은덕이다.

나라의 양어업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철갑상어를 비롯한 희귀한 고급어종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마음껏 먹이실 유대된 구상을 펼치시고 선군령도의 길에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활짝 밝혀주시였으며 신장과 구상, 통연 등 곳곳에 현대적인 양어기지를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최근 통연군의 양어장들을 또다시 찾으신고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양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양어장들이 일떠세워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내 조국의 기적적인 현실은 이 세상 가장 유쾌하고도 명명한 생활을 누리려 할 우리 인민의 장창한 미래를 확연히 약속하고있다.

본사기자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선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기념행사 진행, 블레쥬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돌과 창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살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진보적사상연구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와 《혁명과 건설에서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로씨야기술유리과학연구소 무한주식회사에서는 과학회화, 로씨야 오보로나 77회사들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입실단계의 위험과 조선인민군의 불멸성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미래와 대결전에서 승리하리라를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안아 키우실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공적중에서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하면서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끝나서 해결된 조선의 전도는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에 밝혀진바와 같이 현시기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데서 관건적문제라고 되었고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주제성과 민족성을 확

고히 견지해나갔기에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정치강국,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멀지 않아 강성대국의 대문도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창으로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적인 국가건설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교과서로 삼아야 할 정치지대이다.

로씨야기술유리과학연구소 무한주식회사 제1부총장상사 프코브로 비롯한 발원자들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입실단계의 위험과 조선인민군의 불멸성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미래와 대결전에서 승리하리라를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안아 키우실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공적중에서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하면서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끝나서 해결된 조선의 전도는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에 밝혀진바와 같이 현시기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데서 관건적문제라고 되었고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주제성과 민족성을 확

리해할수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특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그러한 근대는 어떤 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다고 확신하고계신다. 군인들의 사상정신을 기쁘게 이용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무장력에 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견해와 판점이 신성하고도 위대한데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중심의 무력관을 지니고계신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제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어 군건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기쁨이면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군인대중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총대의 위력은 사상과 신념의 위력이다.》, 《혁명승리가 사상사업을 통하여만 승리하고 사상사업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혁명투쟁의 불멸성이 확증된 진리이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것은 그 어떤 무기나 군사기술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적각도와 준비정도이다.》 라는 명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무력관이 어떤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평양수지 연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전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 30일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평양수지연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대중적용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현대화공사와 사회적으로 광범한 평양수지연필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사를 보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장현대화함에 대한 전투적업무를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엄격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정도와 일군들이 공사에 힘입어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나갔도록 뜻깊은 손길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의 전투적조치를 피뎌는 공장에 받아들인 평양수지연필공장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당정책사관들의

수행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물을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날씨조건에 따른 물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한데 기초하여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보수수정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체인 박금중, 직장장 리상일, 초급청년동맹비서 김충현이 트로트하였다.

로몬자들은 최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공장현대화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제시하며 파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장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경영활동을 살리기 위해 짜고들며 당의 은정어린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그 만가들,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성과 인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수지연필과 원주필 등을 더 많이 보내준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당의 경공업혁명방향을 관철해 적극 이바지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대고조건설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연간계획을 끝낸 기세로 계속 혁신

안변 청년 2호 발전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안변청년2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험하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연일 생산적양양을 일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물을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날씨조건에 따른 물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한데 기초하여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보수수정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행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물을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날씨조건에 따른 물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한데 기초하여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보수수정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본사기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뜨거운 은정 넘쳐나는 사랑의 선물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실체를 눈앞에 펼쳐보이며 경사로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민봉사의 전당인 옥류관에 최상급의 요리전문식당이 새로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온정어린 사랑의 선물—옥류관 요리전문식당, 연건축면적이 6 000여㎡에 달하는 요리전문식당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옥류관지구가 특색있는 조선식민족건축물들로 들어찬 금양봉사거리로 변모되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조선의 걸작으로 솟아나오른 세월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조선의 자랑 옥류관에

최상급의 요리전문식당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옥류관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세계걸작의 식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단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분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옥류관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푸른 추녀를 활짝 펼친 요리전문식당은 기존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아하고 튼튼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요리전문식당건물의 기동형식도 종전과는 달리 1층은 직각으로, 2층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2층 식사실들의 유리

벽도 특색있게 병풍식으로 되어있어 민족적고전미를 한층 더해주고있다.

식당의 외부가 우리 민족의 얼이 맥박치는 고전미를 보여준다면 내부는 비길데 없는 우아함과 정교함으로 현대건축예술의 극치를 펼치고있다.

눈부신 대리석바닥과 황홀한 무리등, 화려한 물보라장식벽들이 흠의 우아함을 한껏 돋구어주고 대형바다수조와 벽어항등에서 꼬리치는 철갑상어이며, 자라 등은 류다른 정서와 감흥을 안겨준다.

홀들과 여러개의 식사실들의 바깥쪽을 유리벽으로 처리하여 자연채광이 충분히 흘러들게 하였을뿐 아니라 로대를 여러개 형성하여 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정취가 식당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있게 하였다.

종래의 내부건축법에서 벗어나 매 층마다 시원한 기본색 양옆에 배치된 10개의 식사실들은 하나같이 예술적인 풍격과 자연적인 정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뛰어난 걸작품들이다.

천정 및 내부부장식, 조명구성이 식사실마다 다르며 벽에 걸린 회화 및 공예작품들까지도 개개의 주제를 가지고있어 여러개의 식사실들이 모두 독특한 개성으로 건물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더해준다.

식탁이며 의자, 램프등품 등 비품들도 질 좋고 사용에 편리한 것으로 갖추어졌는데 매 식사실들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로리를 봉사받고있다.

1층에 자리잡고있는 2호실에서는 신선로와 약밥, 갖죽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로리를 봉사하고 3호실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외국 로리를, 5호실에서는 자라튀김, 자라탕, 통자라찜, 자라볶은즙, 자라죽, 자라차를 비롯한 자라로리를 봉사한다.

6호실과 7호실은 매추리구이, 매추리참살소점프구이, 매추리완자탕 등을 봉사하는 매추리 요리 식사실들이며 9호실은 철갑상어로 리시 식사실이다.

참으로 어느 식사실, 어느 시설을 돌아보아도 흠잡을데 없이 편리하고 훌륭

하게 꾸려진 요리전문식당, 인민을 위한 이런 최상급의 요리전문식당이 새로 건설된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공으로 지니고 있는 미소가 실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요리전문식당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로리도 잘하는것으로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리전문식당을 내오도록 다 리진까지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을 불러주시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요리전문식당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셨을뿐 아니라 옥류관의 국수전문로리사들을 요리전문식당으로 돌려 국수의 집이 펼쳐가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로리사와 점대원을 비롯한 봉사자대원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이토록 훌륭한 식당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 군인건설자들과 봉사자들, 수도시민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아버지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끈질을 드리면서 강성대국건설전선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에 충당되어있다.

글 본사기자 장성복 사진 본사기자 장성복

인민이 주는 감사

지난 10월 웅장화려한 식당의 외부와 내부의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 시종 환하신 미소가 실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요리전문식당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로리도 잘하는것으로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리전문식당을 내오도록 다 리진까지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을 불러주시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요리전문식당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셨을뿐 아니라 옥류관의 국수전문로리사들을 요리전문식당으로 돌려 국수의 집이 펼쳐가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로리사와 점대원을 비롯한 봉사자대원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이토록 훌륭한 식당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 군인건설자들과 봉사자들, 수도시민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아버지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끈질을 드리면서 강성대국건설전선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에 충당되어있다.

글 본사기자 장성복 사진 본사기자 장성복

손수 들어오신 변철

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변철을 손에 드시었다.

한손으로 들어보기도 하시고 흔들어보기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굴들에게 무겁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꾼들이 일없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변철을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하시었다.

가슴해보시며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층에 있는 어느 한 호실에 서있어서 유리벽을 보시며 겨울에는 난방보장을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꾼들이 용량이 큰 팬을 풍기를 여러대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없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동안 식사실을 둘러보시

면 되겠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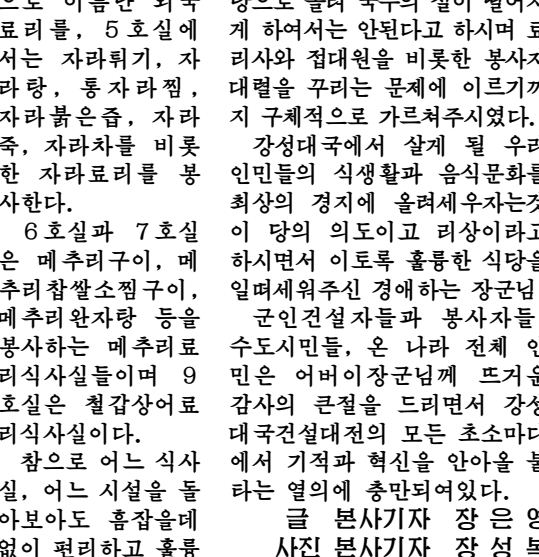
그를 부르러는 일꾼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토록 훌륭한 주방을 마련해주시도록 그것을 리용할 로리사들의 편의까지 염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겁고도 다정한 사랑이 그 무엇에 비길수 없으리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겨울에도 인민들이 따뜻한 식사실에서 맛있는 로리를 들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물을 모르시며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로써 일꾼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식사실온도도

겨울처럼 알뜰거리리는 바디이며 황홀한 천정무리 등, 보기에도 좋고 느끼에도 편리한 식탁들과 의자들...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식사실들은 우아하고 황홀할뿐 아니라 훈훈하기도 하여 포근한감을 더해 주었다.

기쁨에 넘치시어 식당을

가슴해보시며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층에 있는 어느 한 호실에 서있어서 유리벽을 보시며 겨울에는 난방보장을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꾼들이 용량이 큰 팬을 풍기를 여러대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없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동안 식사실을 둘러보시

면 되겠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러는 일꾼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토록 훌륭한 주방을 마련해주시도록 그것을 리용할 로리사들의 편의까지 염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겁고도 다정한 사랑이 그 무엇에 비길수 없으리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겨울에도 인민들이 따뜻한 식사실에서 맛있는 로리를 들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물을 모르시며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로써 일꾼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그날의 높은 뜻 받들어

아직도 모든것이 꿈만 같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식당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인민의 옥류관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세계걸작의 식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윤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요리전문식당의 일꾼들과 봉사자들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이토록 황홀하고 모든것이 최상급인 봉사전당에서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인

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맹세로 더욱더 가슴 벅대우고있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봉사전당인 옥류관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지시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에서 민족로리와 세계적으로 이름난 로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면 옥류관을 더욱 흥성거리게 할수 있을뿐 아니라 바로 여기서 명로리들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로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식당의 위생안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설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훌륭히 꾸려진 요리전문식당이 온을 내게 하였다.

인민에 대한 높은 복무정신을 지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전국의 모범이 되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아 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와 열정을 장그리 다 바칠것이다.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지배인 김준영

최고급의 주방

의하여 각종 로리들이 자동가공되고있다.

설비들은 물론 주방도구들과 집기류, 가공한 로리들을 신속히 식사실들로 운반

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변철을 손에 드시었다.

한손으로 들어보기도 하시고 흔들어보기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굴들에게 무겁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꾼들이 일없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변철을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하시었다.

전국녀맹원들의 인민소비품생산대회 진행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녀맹원들의 인민소비품생산대회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3대혁명전선관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에는 전국의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이 생산한 195종에 이르는 7 700여점의 의류, 용품, 초콜렛, 수공예품 등이 출품되었다.

평양시의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녀맹원들이 내놓은 제품들은 맵시있고 품종과 형태가 다양했으므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람회에서는 질 좋고 쓸모있는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데서

김만유병원 고려치료과 의료일꾼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분명하고 행복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지난 6월말 김만유병원의료실에서는 뜻깊은 모임이 있었다. 의료일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한 영예군인이 무대에 올랐다. 나라밖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장애로 13년세월 전혀 말을 할수 없었던 천진시 포항구역에서 사는 오익철동무였다.

하교실은 말, 부르고실은 노래를 가슴속에 묻어둔채 오랜 기간 안락하게 대대기였을 오익철동무, 이윽하여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라 부릅시다 우리 장군님 어머니라 부릅시다 우리 장군님

... 노래는 격정으로 자주 끊기었다. 그의 얼굴에도, 박수를 보내는 의료일꾼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었다. 오익철동무가 병원에 입원한것은 지난 6월초였다. 그날 그의 병병서를 마주한 고려치료과 과장 윤영호동무의 생각이 깊었다. 오랜 기간 경직되다시피 한 신경세포들을 다시 살려낼수 있다는 담보가 없었다. 그렇다면 방도는 무엇인가.

자기를 바라보던 영예군인의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윤영호동무는 자리에 서 일어섰다. 그는 파의 의사, 간호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영예군인,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그를 위해 정성을 다 바쳐갑시다.」 치료전투가 시작되었다. 10여차례의 파적인 치료의회와 열리고 각종 검사와 침치료와 진

영예군인이

행되었다. 그날의 사, 간호원 들은 환자를 위해 뜨거운 지성을 다 바쳤다. 윤영호동무는 과학적인 치료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약제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담당사사 홍석호, 간호장관 임영동무들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은 환자에게 보약과 구미에 맞는 식사를 보장하는데는 노력을 바쳤다.

정성은 기적을 낳았다. 환자는 입원한지 한주일만에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느리지만 불려주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발음하는 오익철동무를 바라보는 의사, 간호원들의 얼굴이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단어를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 간호원들은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을 골라수첩에 적어가지고 환자의 언어습관을 도왔고 퇴근길을 미루어가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의료일꾼들의 고집이던 노력 끝에 어느덧 오익철동무의 언어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어갔다. 기쁨에 울고 웃으며 뜨겁게 축하해주는 의료일꾼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오익철동무가 수습병이나 위우고 또 위운 말이 있다.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내 퇴원을 앞둔 오익철동무는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꾼들의 정성으로 인하여 자기들 참가시켜줄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무대에 나섰던것이다.

... 노래는 합창으로 번져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 제도의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끝없는 기쁨의 노래였고 숭고한 인간애와 동지적 사랑으로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분출이었다.

본사기자 리경일

정주시 동문중학교를 김정철 중학교로 명명

정주시 동문중학교가 김정철 중학교로 명명되었다.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 조선인민내무군에 입대한 김정철은 복부의 나날을 위하여 수놓아왔으며 최첨단건설선에 참가하여 위기일발의 순간 한복속에서 동지들을 구원하는 영웅적소행을 발휘하였다.

명명식이 11월 28일에 진행되었다.

허영호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문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 영웅의 가족과 학부형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정주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의 명명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평범한 군인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공화국 영웅으로 자라나 모교와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려해주신 사랑과 믿음에는 혁명전사들의 희생정신을 길이 전하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그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참된 인간으로 준비할것을 바라는 뜻과 함께 잊어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교수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학생들은 영웅의 사상정신세계를 본받아 열심껏 배우고 또 배워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 한류할수 있는 역군으로 자라나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명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구바혁명무력절 54돐에 즈음하여 구바혁명전권대사와 대사관무관 연회 마련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구바혁명무력절 54돐에 즈음하여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구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레오나르도 베스 메사 대사관무관이 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판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다.

구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랑 많은 창고의 고안명수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오동진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근로자들은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산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것이 바로 간단한 기술이라고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는 지난 30여년간 배수침중에 달하는 농기계들과 농기구를 창안제작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오동진동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장을 농촌기계화의 모범단위로 꾸리어 당의 믿음에 보답하겠는가. 그는 늘 이 한생각으로 심장을 불타우며 기술혁신의 앞방에서 창조적체와 열정을 안

자랑 많은 창고의 고안명수

고 달라붙어 완성하였다.

성공에 만족을 모르는 그는 얼마전 축력을 리용하여 논벼에 비료주는 기계를 창안제작하여 많은 로력과 비료를 절약하게 하였으며 속성벼모판서리하는기계를 비롯한 많은 기계를 새롭고 훌륭하게 창안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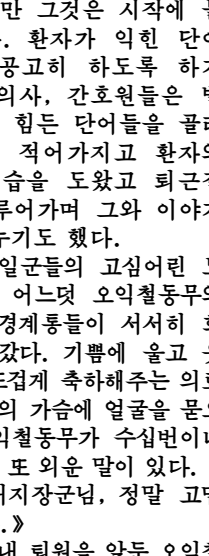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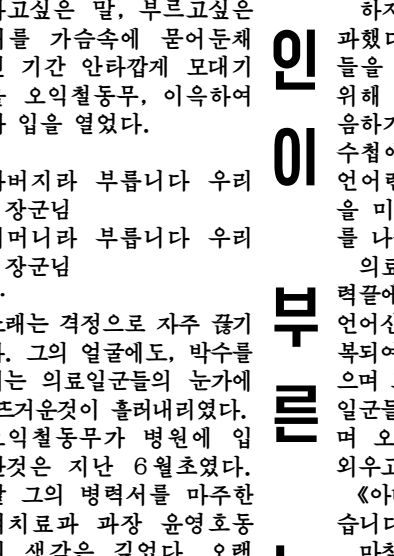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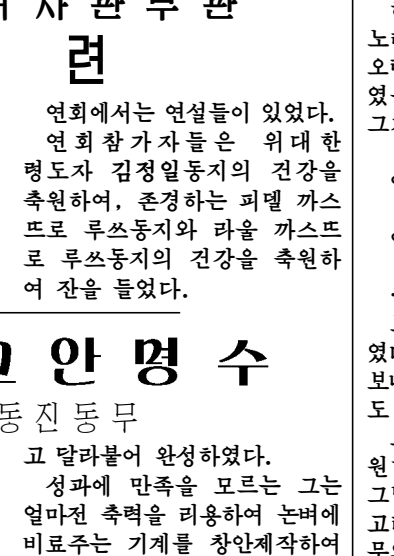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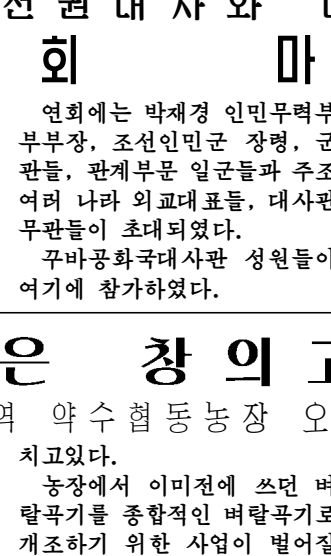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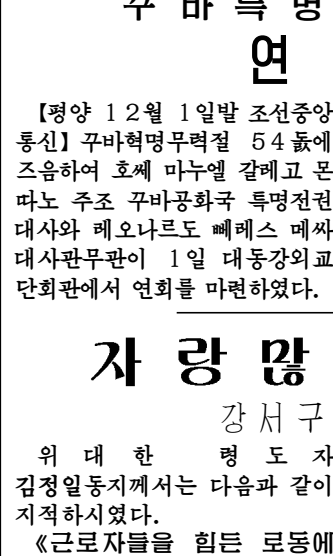
우리 농장원들을 힘하게 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른 당시의 사랑과 온정을 생각하면서 단시간에 모자라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낮에 밤을 이어 사색하고 탐구하여 끝내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늘봄이 훨씬 높은 벼탈곡기 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트랙터를 리용하는 농약분무기를 창안제작 할 때에도 그는 이런 의지를 안

총련 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경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대위님과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보건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대표들과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에이즈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기

대표단은 이밖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방직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참관하였으며 회견2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았다.

집에 갔을때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옛 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류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의 혁명적업은 만경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대표단은 이밖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방직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참관하였으며 회견2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행사 진행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에이즈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담은 특화편지를 「진보적인 근근과 인연」을 감상하였으며 위생선진대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행사 진행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에이즈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담은 특화편지를 「진보적인 근근과 인연」을 감상하였으며 위생선진대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행사 진행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에이즈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담은 특화편지를 「진보적인 근근과 인연」을 감상하였으며 위생선진대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행사 진행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에이즈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담은 특화편지를 「진보적인 근근과 인연」을 감상하였으며 위생선진대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행사 진행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에이즈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담은 특화편지를 「진보적인 근근과 인연」을 감상하였으며 위생선진대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